



“남 위한 일이 나의 일” 비판은 휴머니즘 소산

‘논쟁’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다”이다. 누구나 특정 사안에 대해 비판하고 의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명백한 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이자 정치학자였던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탁월한 논쟁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를 ‘우상 파괴자’라고 부른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믿는 부분이 과연 진실인지 철저히 의심하고, 모든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10여 년간 쓴 칼럼을 모은 마지막 책 ‘논쟁’이 나왔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그의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을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만큼 그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도발적이고 다양하다.

정치, 종교, 문학, 관습에 대한 비판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다시 말해 인권으로 집약된다. 그의 비판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해 침해받은 권리를 되살리려는 인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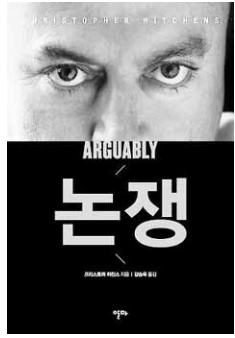
히친스는 말로만 비판의 날을 세우는 비판자는 아니다. 워터보딩(물고문)의 폐해를 주장하기 위해 직접 고문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이슬람 지역 선교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곳에 파견되었던 장교들과 토론한다.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 고통의 실상을

ARGUABLY

직접 확인하기도 한다.

그는 미국의 신화를 깨는 데도 비판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독립선언문의 집필자인 토머스 제퍼슨을 복잡한 사생활에 휩싸인 평범한 사람이라고 혹평하는가 하면, 링컨에 대해서는 종교문제를 풍자했던 ‘불행한 가정사’가 낳은 아이’로 규정한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에는 ‘바나나공화국이 된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칼럼도 썼다.



‘논쟁’ 크리스토퍼 히친스 지음

“정부와 기업의 이러한 공모 덕분에 ‘이윤’은 사유재산이 되고 ‘채무’는 편리하게도 사회의 것이 되었다... 바나나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도둑 정치다. 영향력 있는 지위의 사람들이 임기 중에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며, 혹시 모자라는 부분은 돈을 벌여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항상 매워줘야 하는 정치 말이다.”

히친스는 북한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북한을 가리켜 ‘난징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나라’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다. 그의 눈에 비친 북한의 실상은 소설 ‘1984’보다 더한 전체주의 국가다. 모든 일상이 통제되고 심지어 생각까지도 감시를 받는 대규모 ‘수용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판의 시선은 아프가니스탄 등을 포함한 일부 급진적 이슬람 국가로도 향한다. 그는 여성에 대한 자의적이고 기가 막히는 처벌에 대해 분노한다.

이처럼 히친스가 선택한 쟁점은 누군가는 앞에서 거론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다. 그의 비판이 옳고 그름을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그 때문이다. 그의 비판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려주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결국 그의 비판은 남이 아닌 나의 권리로 귀결된다. <알마·2만1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제도를 위한 삶에 저항한 여인들... 비극적 순애보

‘불의 꽃’ 김별아 지음



새 나라 조선의 유교적 체제 안에 귀속된 나머지 불평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본다. 사람이 아닌 제도를 위한 삶의 결과와 그 안에서 사람으로 저항한 여성들의 삶을 통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와 사람’의 문제를 제기한다.

김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 책은 전작 ‘채홍’에 이어 사랑이라는 죄목으로 국가의 처벌을 받은 조선 여성 3부작의 두 번째 이야기다. 그것이 아무리 극악한 중죄로 규정될지라도 기어코 사랑하여 가까이 패배한 어리석고 용감하고 뜨거운 여성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또 다시, 사랑을 믿어본다”고 썼다.

<해냄·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지털로 하나된 세상, 우리의 미래

‘새로운 디지털 시대’

에릭 슈미트·제러드 코언 지음

“2020년 안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될 것이다.”

얼마 전, 구글의 회장 에릭 슈미트가 자신의 구글 플러스 계정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그는 “10년 내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인 모두가 온라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연 에릭 슈미트의 말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연결된다는 게 가능할까? 그는 구글의 싱크탱크인 ‘구글 아이디어’의 소장 제러드 코언과 함께 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전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될 세상을 현실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이 책은 기존의 우리가 보아온 미래 예측서와 근본



적으로 다르다. 한가지 개념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거나 주마간산식의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 없는 기술세계의 진화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진단한다. 개인의 신원 문제부터 테러와 혁명 등 우리의 삶과 사회를 둘러싼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망한다.

저자들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연결성의 확대’를 미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나 기업 등 권력을 개인에게로 이양한다는 데 있다. 권력의 재분배가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미래에,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들의 예측은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 <알마·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행복해지고 싶다면...

한세상 훨훨 살아라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

스테판 에셀 지음



‘분노하라’라는 책으로 세계인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깨뜨렸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스테판 에셀의 자서전이 출간됐다. 지난 2월 향년 95세로 타계한 이래 그의 삶을 조명하는 붓이 일고 있다.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여 전인 2012년 프랑스에서 발표한 자서전이다.

자서전에는 진보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불꽃같은 신념으로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한 내용과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들로 가득

하다. 또한 책에는 그가 자신의 사상을 구축하기 까지 그의 생애 영향을 미친 수많은 만남과 모험이 펼쳐진다. 그는 모든 실패와 불행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불행에서 빠져나와 행복해지기를 원했다. 마지막 자서전은 “좌절에 빠져 더이상 희망을 믿지 않으며 출구를 찾는 의욕조차 갖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 내미는 따스한 손길이다. <문학동네·1만4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마음살림’

김석중 지음



“찢찢 땀 것 없이, 집착할 것도 없이, 한세상 훨훨 살아라!”

집안 살림이 아무리 풍족해도 마음 살림이 부족하면 다 헛인생이다. 진짜 잘사는 사람은 찢찢 땀 일도 없이, 집착할 것도 없이 트인 마음으로 훨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30년간 종교 담당 기자생활을 해 온 김석중 경향신문 선임기자가 ‘큰 스님 27인이 전하는 마음을 살리는 지혜-마음살림’을 펴냈다. ‘염화실의 향기’라는 이름으로 경향신문에 연재

한 글을 보완해 다시 쓴 것과 이후 만난 큰스님까지 스물일곱 분의 이야기를 담았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그 사이 세상을 떠난 큰스님들을 2부에서 따로 만났다. 책은 한국 불교의 근대사에서부터 스님과 사찰 대대로 이어지는 계보, 여러 경전을 인용한 경구, 유훈 선승들에 얽힌 일화 등 불교에 해박하지 않고서는 답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겼다. <위즈덤하우스·1만84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수많은 문화와 만나 진화한 ‘커리’

‘커리의 지구사’

콜린 테일러 센 지음



한국인이 통상 ‘카레’라고 부르는 ‘커리’(Curry)는 인도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인도에서는 ‘커리’라고 부르는 음식이 없다고 한다.

커리는 코리엔더, 호로파, 후추 등 다양한 향신료로 구성된 커리 가루나 소스가 들어간 스튜, 국수, 볶음밥, 튀김 등의 모든 음식을 일컫는 말이다.

식탁 위의 글로벌 히스토리를 소개하는 다섯 번째 책이 나왔다. 시카고 트리뷴과 잡지 ‘푸드 아트’ 등에 글을 쓰고 있는 콜린 테일러 센(Colleen Taylor Sen)이 쓴 ‘커리의 지구사’는 커리의 기원과 전파 경로를 추적해 나가면서 진화와 탐미감을 거듭하고 있는 커리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동양의 스튜’인 커리는 인도에서 탄생했지만 영국을 통해 세계로 전파됐다.

인도가 1600년부터 1947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커리 각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하는지가 흥미롭다. 책의 말미에는 다양한 커리 레시피를 더했다.

이후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로 확산됐고, 아프리카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이 책은 이 같은 커리의 역사와 함께 커리에 담긴 향신료만큼이나 다양한 지구촌 문화를 함께 소개한다. 커리가 각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하는지가 흥미롭다. 책의 말미에는 다양한 커리 레시피를 더했다.

<Humanist·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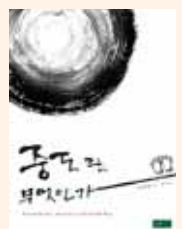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신간

▲조선정치사의 발견=‘조선정치사의 발견-조선의 유교정치와 문명전환의 위기’는 기존 근대이행기 연구의 틀에 의문부호를 던지는 책이다. 그동안 ‘개혁군주’와 ‘유약한 왕’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아온 고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조선의 선택이 군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조선왕조사의 축적된 역사를 토대로 한 불가피한 경로였음을 흥미롭게 들려준다. <창비·4만8000원>

▲중도란 무언인가=베트남 출신의 스님이 자 서인이며 평화운동가로 세계 불교계의 상징적 인물인 티벳의 스님의 최근 신작. 프랑스 출판 발리지에서 30년이 넘도록 법문과 수행을 해온 그의 최고의 가르침이며 핵심이다. 스님이 말하는 ‘중도’는 이해심, 자유 그리고 평화에 이르는 길이다.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누구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사군자·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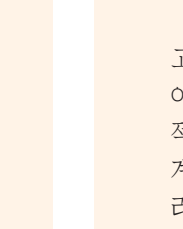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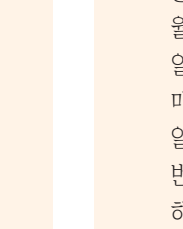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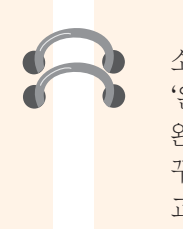
▲커피, 설탕, 차의 세계사=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와 차, 그리고 거의 모든 음식에 감미료로 들어가는 설탕에 얽힌 역사를 다룬 책이다. 커피나 차를 마시는 문화는 그 자체가 근대적인 현상일 뿐더러 근대 이후 세계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예무역, 서구의 식민지 경영, 미국의 독립, 아편전쟁, 프랑스 혁명 등은 커피, 차, 설탕과 여러모로 관련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필맥·1만2000원>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 ‘김희아’,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했던 김희아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첫 에세이다. 그녀는 눈물보다 감사를 선택했다. 그녀의 감사는 무거운 삶을 단번에 경쾌한 희망과 행복으로 바꿔버리는 특별한 힘이 있다. <김영사·1만3000원>

▲초조한 마음=전기 작가이자 심리소설의 대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생전에 완성한 유일한 장편소설 ‘초조한 마음’이 국내에서 출간됐다. 나치의 탄압을 피해 망명생활을 하던 1939년에 스톡홀름과 암스테르담에서 출간해 탁월한 심리묘사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동시에 받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의 미세한 감정까지 날날이 해부해 치밀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해냈다. <문학과 지성사·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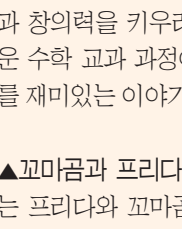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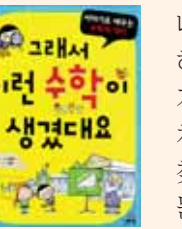
▲한국의 레지스탕스=일본 제국주의의 야만과 광기, 절망에 맞서 투쟁한 항일 혁명가들의 고뇌와 투쟁 현장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책이다. 청년 안창호의 신민회부터 만년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까지 민족해방과 새 조국 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7개 비밀결사단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레지스탕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생각정원·1만6000원>



▲화산 폭발 생일파티=소설가 심윤경이 쓴 동화 ‘은지와 호찬이’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엉뚱한 말쑥꾸러기 호찬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처음으로 생일을 맞았다. 하지만 8월에 태어난 은찬이의 생일은 여름방학 기간이다. 매년 제대로 생일파티를 열지 못했던 호찬이는 이번만큼은 친구들을 초대해 화려하게 파티를 하고 싶다. <사계절·8000원>

▲엄마가 제일 잘 알!=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아이 브래들리와 엄마의 이야기, 엄마와 아이의 일상을 공명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날마다 승강기를 밟아지만 신뢰와 사랑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길벗어린이·1만1000원>

▲우리 할아버지=치매라는 슬픈 병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손녀를 만나러 오지 못하게 된 할아버지.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손



어린이 책꽂이

너는 할아버지가 싫기도 하고, 밍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다. 하지만 손녀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찾아간다. 사랑과 연민이 묻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노란돼지·1만1000원>
▲그래서 이런 수학이 생겼대요 = 201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스토리텔링 수학.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수학적 사고

력과 창의력을 키우려는 목적이다. 책에는 새로운 수학 교과 과정에서 강조되는 수학의 역사를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담았다. <길벗스쿨·1만1000원>

▲꼬마곰과 프리다=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프리다와 꼬마곰. 어느날 무엇을 그려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은 꼬마곰에게 프리다는 세이프 게임을 제안한다. 먼저 종이 위에 어떤 형태가 분명치 않은 모양을 그리고 다음 사람이 이를 이어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놀이다. 꼬마곰과 프리다는 서로 세이프를 주고받으며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한복스·1만1000원>